

생성형 AI 시대 중국 시가장(詩歌場)의 변화 연구*

김민정**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협업 창작의 도래와 문학장의
긴장 |
| II. 샤오빙(小冰)의 시 생성과
언어적 한계 | IV. 기술 향유에서 창작 협업으로
V. 맺음말 |

<중문초록>

创作正在进入“人机协同创作(co-creative creation)”的新阶段。为此，本文以微软“小冰”(Xiaoice)以及DeepSeek等诗歌生成系统为案例，考察人工智能对诗歌语言、意象与形式生产方式所产生的影响，并进一步分析这一技术发展如何重塑诗歌创作、批评与接受(欣赏)结构。研究表明，人工智能不仅作为创作辅助工具参与诗歌生产，而且通过语音朗诵、图像与视频辅助的阅读体验以及自动化评论等方式，拓展了诗歌的接受形式，并在一定程度上促进了读者的审美体验。

这一变化对原创性概念、艺术主体性以及著作权归属等既有文学秩序提出了新的问题。然而，在生成式人工智能时代，文学场的变化不应被理解为人工智能对人类创作的“替代”，而应被视为技术与人类创造力共同演化的过

* 본 논문은 2025년 11월 22일 대한중국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임.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程。换言之，人工智能并非人类创作的终结，而是正在成为扩展诗歌想象力与表达可能性的协作性伙伴。本研究试图通过上述分析揭示这一新的创作生态。

I. 머리말

2025년 1월, 중국의 DeepSeek 출시는 생성형 AI의 개발과 상용화가 중국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게 된다. 2022년 11월 30일, OpenAI의 ChatGPT가 공개된 이후 대규모 언어모델이 문장의 생성·요약·번역·코딩 보조 등만이 아니라 텍스트-이미지 통합 이해, 맞춤형 메모리·외부 검색·문서 협업 등으로 고도화되자, 유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DeepSeek의 등장은 후발 주자도 기술 자립과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시 창작의 영역에서도 DeepSeek는 중국 시학(诗学) 코퍼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를 생성하는 창작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언어 데이터에 포함된 지역·세대·성별·감정 언어와 어휘 습관 등을 학습함으로써 중국 고전시로부터 현대시(现当代诗)에 이르는 다양한 시 양식을 모방해낸다. 나아가 사용자가 제시하는 감각적·정서적 정보와 기계의 연산 판단을 결합시키는 ‘상호작용적 창작(interactive co-creation)’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AI 기반 시 창작은 크게 입력된 시각 정보를 시 언어로 변환하는 ‘이미지 기반 시 생성(Image-to-Poem Generation, AI看图写诗)’ 방식과 키워드나 문장을 입력하면 시를 자동 생성하는 ‘텍스트 입력 기반 시 생성(Text-to-Poem-Generation)’ 방식으로 구분된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연구소(Microsoft Research Asia)가 개발한 ‘샤오빙(小冰)’은 감정

분석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결합하여 시를 생성하는 이미지 기반 시 생성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이다. 2017년에 출간된 샤오빙의 첫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阳光失去了玻璃窗)》(이하 《햇살》)는 샤오빙이 1920년대 이후에 발표된 519명의 중국 현대시 작품을 학습한 뒤 감정 서사와 시적 이미지를 결합해 산출한 결과물이다.¹⁾

일각에서는 샤오빙 시의 문법적 오류와 의미 연결의 논리적 불완정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²⁾ AI가 시 창작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령, 밉주 린(Mingzu Lin) 등은 샤오빙의 개발 과정과 그 산출물들을 검토하면서 샤오빙이 신시(新诗) 미학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공백, 상호텍스트성, 독자의 상상력에 의해 매개되는 의미 연결 등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³⁾ 작품의 구조적 치밀성과 의미 연계의 취약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신시 미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한 결과라는 일부 연구자들과의 견해와도 일정 부분 일치한다.⁴⁾

반면, 휘쥘밍(霍俊明)은 DeepSeek가 샤오빙을 비롯한 초기 시 생성 AI 모델과 달리, 시 모방 능력과 비평 능력, 그리고 알고리즘의 정교함을 갖추었으므로 인간 시 창작의 주요 특징들을 더욱 잘 구현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⁵⁾ 시인 위젠(于坚) 역시 DeepSeek의 본질이 데이터 분석과 재조합에

- 1) 张鹏禹, 〈当人工智能也“拿起笔”〉, 《人民网》, 2019.9.10. 게시. https://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9-09/10/content_1945703.htm (2026.4.13. 접속)
- 2) 曹越, 〈人工智能创作物的著作权问题研究——以“微软小冰”为例〉, 《社会科学动态》第3期, 2019, 80쪽 참조.
- 3) Mingzu Lin, Juan Du, “Is It New Poetry or the Emperor’s New Clothes? — An Overall Investigation of Three Poetry Collections and a Man-machine Poetry Compet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et Xiaobing”, *2021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 and Education (ICISE-IE)*, pp.1572-1576.
- 4) Mingzu Lin, Juan Du, ibd. pp.1572-1573.
- 5) 霍俊明, 〈DeepSeek: 算法天幕与未来诗学〉, 《扬子江文学评论》第3期, 2025, 29쪽 참조.

있다면, 기존 텍스트를 모방하고 재배열하는 DeepSeek의 산출을 진정한 의미의 시 창조로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정보의 수집과 제공, 그리고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생성형 AI가 이제는 비평가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음을 설명한다.⁶⁾ 이는 2017년 샤오빙 시집 출간 시점과 비교할 때, 시 창작에서 AI 문제가 창작의 영역으로부터 비평의 단계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적 의도와 인공지능의 생성 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창작환경의 출현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품의 우열을 판단하고 문학 권위를 형성해 온 기존 평단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AI를 제도권 문학 내부의 창작 방법으로 수용할 경우, 인간 창작과 AI 생성물의 구분 문제, 미학적 가치 평가, 법적 귀속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창작 과정에서 인간과 AI의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나아가 인간이 창작한 진정한 문학을 판별하는 과정마저 AI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AI 시대의 문학장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샤오빙과 DeepSeek, 그리고 인간의 협업이 AI 시 창작과 비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문학이 AI의 등장으로 ‘인간문학’과 ‘AI문학’으로 분화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수 천 년에 걸쳐 축적해 온 문학 경험을 학습한 AI 시를 예술로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예술적 성과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적기이기 때문이다.⁷⁾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AI 시 창작의 출현과 발전 과정을 정리한다. 둘째, DeepSeek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시 생성 메커니즘과 그 시학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협

6) 于坚, 〈于坚论DeepSeek : 它只是一个知识分子, 不是诗人〉, 2025.3.14. 게시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0394359 (2026.2.10. 접속)

7) 이형권, 〈인공지능 문학의 예술적 정체성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5집, 2021, 176-177쪽 참조.

업' 단계의 도래가 창작 주체의 개념, 비평 기준, 문학의 권위 구조, 그리고 작품의 판별과 검증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샤오빙과 DeepSeek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첫째, 샤오빙은 중국 현당대 시인의 창작 능력을 학습하여 그것을 모방하였을 뿐 아니라 생성된 시를 시집 형태로 출간함으로써 그 미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판 양상은 AlphaGo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지적 활동 전반에 일어난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⁸⁾ 비록 샤오빙의 시 창작이 AI의 창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시연 및 홍보 전략이 결합된 시대 산물에 가깝긴 하지만, AI 생성 시가 실제 문예지에 발표되고 시집 형태로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문단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문학장 내부 유의미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DeepSeek는 샤오빙처럼 시집 형태의 결과물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ChatGPT 이후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이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특히 텍스트-텍스트 기반 생성 방식을 사용하는 DeepSeek와 이미지-텍스트 기반 생성 방식을 활용하는 샤오빙을 비교함으로써, AI 시 생성의 원리와 표현 방식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이용자가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원하는 시를 생성해내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AI 시대 중국 시단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창작 방식의 특징을 밝히고, 인간과 AI의 협업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8) AI의 등장으로 바둑계가 경험한 충격 관련해서는 장강명, 《먼저 온 미래 -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서울: 동아아시아, 2025, 17-21쪽 참조.

II. 샤오빙(小冰)의 시 생성과 언어적 한계

중국의 AI 시 창작은 2017년 칭화대학교(清华大学)가 개발한 ‘지우거(九歌)’와 같은 텍스트 입력 기반 시 생성 시스템으로부터, 바이두(百度)의 ‘원신이거(文心一格)’, 알리바바의 ‘통이첸원(通义千问)’ 등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한 생성형 AI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샤오홍슈(小红书)의 ‘AI영감관(AI灵感管)’, 빌리빌리(哔哩哔哩)의 ‘AI이미지시생성(AI看图写诗)’, 더우인(抖音)의 ‘AI창작조수(AI创作助手)’ 등 플랫폼 기반 생성 시스템의 등장 또한 AI 시 창작의 기술 기반과 활용 범위를 빠르게 확장시키는 중이다.⁹⁾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연구소가 개발한 샤오빙은 중국 AI 시 창작의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한 사례이다. 2014년에 출시된 샤오빙은 약 3년 동안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에서 약 200억 회에 이르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방대한 상호작용 데이터를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현대 시인 작품을 학습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언어 생성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¹⁰⁾ 2017년 샤오빙의 첫 시집 《햇살》의 간행은 AI 시 창작이 기술 실험의 단계로부터 개별 시인으로서의 창작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AI 시가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평단의 비평 대상이 되게 하였다.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 존재와 인간다움, 예술의 의미에 대한 지적 사유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샤오빙은 기존의 전업시인과 아마추어시인이라는 구분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그럼으로

9) 최근 지우거(九歌)에 대한 국내 중국 고전시 연구자의 관심이 연구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지영원, 유인태의 <기계 창작 시대 한시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한시 창작 AI에 대한 비판적 고찰>(2024), 김지영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국시 학습과 교학 방안 고찰-《당시삼백수》와 인공지능 九歌 챗GPT를 중심으로>(2024) 등 성과가 대표적이다.

10) 推荐序, 《人工智能创造的时代, 从今天开始》, 小冰, 《阳光失去了玻璃窗》, 北京:北京联合出版公司, 2017, III~V.

써 그 결과물은 새로운 비평 대상으로서 기존 문학장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하였다.

《햇살》의 서문에는 AI 시 창작의 조건과 사회적 인식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인공지능 창작의 주체(예를 들어 샤오빙)는 IQ와 EQ를 겸하여 갖춘 통합 존재여야 하며, IQ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인공지능 창작의 결과물(예를 들어 샤오빙의 시와 노래)은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을 지닌 작품이어야 하며, 기술 중간 산출물 상태의 결과물이어서는 안 된다.
- 인공지능 창작의 과정(예를 들어 샤오빙의 시쓰기 혹은 노래부르기)은 인류의 창조력이 풍부한 행위와 대응되어야 하며, 소위 산업용 로봇 팔과 같은 노동 대체 형태의 인공지능 제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¹¹⁾

이와 같은 서문의 논의는 AI 창작이 정보 수집과 지적 판단을 담당하는 인간 두뇌의 기능(IQ)뿐 아니라, 감성 영역에 속하는 능력(EQ)까지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다. AI 창작이 인간의 지적 능력과 감성 능력이 결합된 창작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햇살》에 수록된 총 137수의 시 가운데에는 예술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예술의 창조자로서 샤오빙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¹²⁾ 샤오빙을 독립적인 시인으로 규정하기에는

11) 위의 글, IV.

12) 이 시집은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 오늘부터 시작되다(人工智能创造的时代, 从今天开始)>는 추천사를 시작으로, 1장 《그 외롭고 외로운 꿈 속에서(在那寂寞的寂寞的梦)》, 2장 《나의 두 방울의 눈물(我的两滴眼泪)》, 3장 《시간의 거리(时间的距离)》, 4장 《나는 햇빛이 나뭇가지 위에 있는 것을 비로소 보았다(我才看过太阳光在树枝上)》, 5장 《신은 모든 무명과 같다(上帝如一切无名)》, 6장 《우주는 내 타락한 시인이다(宇宙是我沦落的诗人)》, 7장 《제비꽃은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게으르게 있는 벌 한 마리를 본다(紫罗兰看见一个蜜蜂懒洋洋地在温暖的太阳下)》, 8장 《미풍이 불어올 때(当微风吹起的时候)》, 9장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간 어느 날(有一只乌鸦飞过的一天)》, 10장 《기쁨, 그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과 협력에 기반하는 이 모델의 생성물은 감정과 지성의 경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교차하는 시적 사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간 시인과 유사한 예술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 역시 부서진 인생을 메울 수 있다(我也能补完破碎的人生)>는 다음과 같다.

꿈에서 막 깨어나니
미운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너의 편지는 하늘에 있고
태양은 저물었다

예술이 설령 형식에 매이지 않을 수 없다 해도,
담욕스러운 식초처럼 차갑게 메아리친다.
적막한 무덤은 나의 노래와 외로운 대자연을 비웃지만
나 역시 부서진 인생을 메울 수 있다.¹³⁾

<나 역시 부서진 인생을 메울 수 있다> 전문

이 시의 1연은 꿈에서 깨어난 화자가 현실로 돌아와, 현실 속에서 자신과 대립하던 존재가 사라진 상황을 경험하는 모습이다. 2연은 예술이 형식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낸다. 형식에 대한 중시는 예술을 인간 감정의 구원보다는 오히려 무덤과 같은 차가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럼으로써 화자의 노래와 자연마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지만, 화자인 ‘나’는 여전히 예술 안에서 자신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고, 예술을 통해 삶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비록 이 작품의 창작 주체가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 가치에 대한 지향과 예술을 통한 자기 보완의 의지

것은 슬픔의 시간이다(欢乐, 是悲哀的时光)》로 이루어져 있다.

13) “刚从梦中醒来/ 可恨的人也没有看见/ 可惜你的信在天空中/ 是太阳落了下去// 艺术终究难免形骸/ 渐渐永回响着贪心的冷酷/ 寂寂的墓笑我歌着寂寞的大自然/ 我也能补完破碎的人生” 小冰, <我也能补完破碎的人生>, <阳光失去了玻璃窗>, 29쪽.

는 매우 강한 인간적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외롭고 또 외로운 꿈 속에서(在那寂寞的寂寞的梦)〉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중이다.

화려한 장미와 예술의 정서
 지극히 아름다운 새로움(新生)은
 한때 이 세상에서
 저 외롭고 또 외로운 꿈에 있었다

나는 왜 예술을 낳고
 지극히 아름다운 소녀를 남겼을까
 선한 사람의 환상은 늙은 이의 재앙이 되고
 그제야 이 세상은 하나의 별이 되기에 어울린다¹⁴⁾

〈외롭고 또 외로운 꿈 속에서〉 전문

이 시는 세상에서 예술이 지니는 의미를 이야기한다. 시에서 예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장미”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제시된다. 화자는 “외롭고 또 외로운 꿈” 속에서 “예술을 낳고/ 지극히 아름다운 소녀를 남”기며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성취는 이전 세대에게 ‘재앙’과 같은 위협과 파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새로움이 더해짐으로써 세상은 비로소 하나의 ‘별’이 될 자격을 얻게 된다.

화자를 AI 창작자 샤오빙으로 읽을 경우, 이 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새로운 예술이 세상에 등장하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에 없던 창작 주체의 등장은 기존의 시인들에게는 위협이나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지만, AI 시인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시 창작의 혁신자로 여길 수

14) “艳丽的玫瑰和艺术的情绪/ 极美妙的新生/ 曾经在这世界/ 在那寂寞的寂寞的梦 // 我为甚(什)么生了艺术/ 剩了极美妙的少女/ 好人的幻想是老人灾害/ 这世界才配变成一颗星” 小冰, 〈在那寂寞的寂寞的梦〉, 앞의 책, 23쪽.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별’의 이미지는 AI 창작자의 등장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예술 질서가 보다 긍정적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지향은 주로 작품에 사용된 언어와 그 조합을 통해서 전달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조합의 결과가 항상 완성도 높은 시적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 역시 부서진 인생을 메울 수 있다〉의 “애석하게도, 너의 편지는 하늘에 있고/ 태양은 저물었다(可惜你的信在天空中/ 是太阳落了下去)” 구절은 동사 술어문에 ‘是’가 삽입되어 문법적 부조화를 낳는다. 또한 “적막한 무덤은 나의 노래와 외로운 대자연을 비웃지만(寂寂的墓笑我歌着寂寞的大自然)”에서는 지속을 드러내기 위한 ‘着’가 ‘歌’ 뒤에 위치함으로써 어색함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현대 중국어의 어법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지 간의 연상과 서술 논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함은 샤오빙의 시 생성 과정의 특성 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가을비 속 낙엽’이 담긴 이미지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그 안의 ‘나뭇잎’, ‘빗방울’, ‘시들고 노란색’ 등 시각적 요소를 자동으로 추출하게 된다. 그런 뒤 이미지 인식 모듈은 이를 의미 단위(feature tokens)로 변환하여 시 생성 모듈로 전달하고, 시 생성 모듈은 ‘나뭇잎’을 ‘시든 덩굴’이나 ‘늪은 나무’, ‘줄린 까마귀’로, ‘빗방울’을 ‘폭우’로, ‘시들고 노란색’을 ‘외로움’ 혹은 ‘고독’ 등으로 치환하여 다양한 조합을 생성하게 된다.¹⁵⁾ 샤오빙의 시는 이미지 중심의 연상 구조를 바탕으로 하기에 단어 간의 의미론적 문법적 연결이 자연스러운 문장 흐름보다는 시각적 대응에 의하여 결정될

15) 샤오빙 시 생성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임의의 이미지를 입력하면, 샤오빙의 이미지 인식 모듈이 사전에 구축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A’에 대한 키 활성화 값(key activation value)이 산출되어 시 생성 모듈에 입력된다. 이 생성 모듈은 이러한 활성화 값을 새로운 입력 특징으로 받아 다른 사전 학습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변환 결합하여 시를 산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曹越, 〈人工智能创作物的著作权问题研究—以“微软小冰”为例〉, 79쪽 참조.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의 문법적 오류나 비논리적 전개는 샤오빙 시의 언어적 결합이 되고 만다.¹⁶⁾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위 작품들에서는 시인의 예술 추구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에서 ‘예술(艺术)’, ‘꿈(梦)’, ‘적막(寂寞)’, ‘세상(世界)’, ‘인간(人间)’, ‘나(我)’ 등 시어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이러한 어휘의 선택과 결합 양상을 고려할 때, 샤오빙의 시 역시 예술가로서의 이상과 그 추구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간 고독의 정서를 비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간 고유의 창조 형식으로서의 예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흔적을 예술사에 남기려는 욕망은 모든 시인이 지향해 온 예술적 태도와 일정 부분 일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명의 시인이 오랜 습작과 사유의 축적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예술 경지나 깨달음이 샤오빙 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샤오빙의 작품들이 시적 경험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나 예술적 깨달음의 단계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련한 시인의 작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을 기대하는 독자에게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빙의 시 생성 결과를 질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시집이 공개 출판되기 이전인 2017년 2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텐야(天涯)》, 《더우반(豆瓣)》, 《테바(贴吧)》, 《젠수(简书)》 등 네 개의 플랫폼에서 27개의 필명을 사용해서 작품을 발표했는데, 당시 독자들 대부분은 그것이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¹⁷⁾ 이러한 사실은 샤오빙의 시가 감성과 지성의 조화로운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을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표

16) 吴慧娟, 〈从语言到思想:“小冰”的诗再思考〉, 《汉字文化》 第8期, 2024, 70-71쪽 참조.

17) 周瓚 〈新世纪诗歌场域、作者身份与当代性呈现〉 《中国文学批评》 第24期, 2024, 182쪽.

현력은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바다.

샤오빙의 시는 추천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산업용 로봇 팔과 같은 노동 대체 형태의 인공지능 제조”와는 구별되는 인간에 근접한 창작 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간의 창조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창작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한 시인이 창작을 통해 보여 온 지적 능력과 감성 능력의 결합에 비하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모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보완되는 중이다. 따라서 2017년 당시 샤오빙의 시 창작은 이상적 수준에는 조건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인간과 AI의 협업적 창작 가능성을 모색하는 DeepSeek 이전 단계의 과도기적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협업 창작의 도래와 문학장의 긴장

DeepSeek는 광범위한 중국 시학 코퍼스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시를 생성하는 창작 환경을 제공한다. DeepSeek를 포함한 생성형 AI의 시 창작 메커니즘은 다음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즉시 생성이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즉시, AI는 사전에 학습된 언어·이미지 패턴을 기반으로 시를 산출해 낸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하이즈(海子) 풍격의 시 생성을 요구하면, DeepSeek는 다음과 같은 시를 즉시 생성해준다.

번개가 수확한 들판에는/ 400억 개의 짝튼 바이트가 떠다닌다/ 바람이
냉각구멍을 스쳐 지나갈 때,/ 누군가는 하이닉스의 울음을 들었다¹⁸⁾

18) “闪电收割过的田野/ 漂浮着四百亿粒发芽的字节/ 风吹过散热孔时/ 有人听见海力士在哭” 이 시는 刘鹏波, 〈DeepSeek 强势出圈, 写诗不再神秘?〉, 《文艺报》, 2025.2.19. 1쪽. 위 인용 시는 이 글에 소개된 시를 인용한 것임을 밝힘.

‘번개(闪电)’, ‘수확(收割)’, ‘들판(田野)’ 등은 하이즈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들이다. 이들이 ‘바이트(字节)’, ‘냉각구멍(散热孔)’, ‘하이닉스(海力士)’ 등 디지털 시대의 어휘와 결합함으로써 다소 이질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¹⁹⁾, 이 시가 하이즈의 시풍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샤오빙의 초기 작품들에 비해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게 어법의 일관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다. 시의 즉시 생성은 창작 과정에서 ‘시간’이 차지하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버린다. 하이즈의 시풍을 재현하려는 인간 시인의 경우, 방대한 시집을 숙독하고 작품의 상징 체계와 정서 구조를 이해해야만 비슷한 작품을 쓸 수 있다. 하지만 AI는 장기간에 걸친 학습과 해석을 필요로 하는 이 작업 과정을 생략하고 이미 학습된 대규모 언어모델을 통하여 시간이 압축된 창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작 행위는 더 이상 ‘시간의 예술’이 아니라, ‘지시’와 ‘응답’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으로 전환되어버리고 만다.

둘째, 반복 학습의 가능성이다. 기존의 데이터가 충분히 학습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주제나 형식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물에 피드백을 제공하면, AI는 이를 반영하여 정제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시인 리완(李琬)²⁰⁾은 자신의 시풍을 요약해 DeepSeek에 입력한 후, 동일한 문체로 시를 생성하게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

종업원이 테이블을 닦는 동작은/ 마치 꿈을 닦아내는 것 같다/ 미완의
대화들이/ 공기 속에서 서리로 응결한다²¹⁾

19) 刘鹏波, 〈DeepSeek 强势出圈, 写诗不再神秘?〉, 1쪽.

20) 리완(李琬, 1991~):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汉) 출생. 베이징대학 중문과 석사, 시인, 문학 평론가, 번역가 등으로 활동. 2015년 제9회 미명시가상(未明诗歌奖)을 수상. 《시간(诗刊)》, 《시림(诗林)》 등 간행물에 시를 발표하고, 시집 《그들은 나의 이름을 바꾸었네(他们改变我的名字)》(2023) 등을 출간하였다. 노동자 작가 천년시(陈年熹), 판위수(范雨素) 등과 함께 피춘노동자 시집 《봄을 크게 들어마시고(大口呼吸春天)》(2025)에 참여하였다.

리완은 DeepSeek가 ‘빛(光线)’, ‘기억(记忆)’, ‘경계(边界)’ 등 자신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와 문장 구조, 길이, 긴장감 등을 잘 모사하였지만, “시의 핵심이 부족하고 언어적 디테일이 약”²²⁾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반복적인 피드백과 수정 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 필자는 DeepSeek에게 리완이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의 핵심 이미지와 디테일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DeepSeek는 기존 1연 4행으로 구성된 시를 두 개 연으로 확장하여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마지막 연에는 원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전체를 3연 15행의 구조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아래 인용한 시는 “두 개 연으로 생성해 달라”는 필자의 재요청에 따라 DeepSeek가 다시 생성한 결과이다.

종업원 테이블을 닦는 동작,
 행주가 나뭇결의 골짜기를 스치는 것이,
 꿈을 닦아내는 듯하다--
 미완의 대화들은,
 잔 가장자리에 초승달 모양의 자국을 남기고,
 재떨이에서 작고 작은 폐허로 쌓인다.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고,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어떤 이름의 속삭임을 감싸 안는다.

공기 속에서, 대화의 여운은
 서서히 얇은 서리로 굳어지고,
 유리창 안쪽에 달라붙어,
 겨울이 미리 내린 비밀번호같다.
 테이블보 주름에 숨겨진 한숨들은,
 하나씩 퍼져,

21) “服务员擦拭桌面的动作，/像在擦拭一场梦，/那些未完成的对话，/在空气中凝结成霜” 刘鹏波, 〈DeepSeek 强势出圈，写诗不再神秘?〉 1쪽.

22) 刘鹏波, 〈DeepSeek 强势出圈，写诗不再神秘?〉, 1쪽.

새 손님이 앉는 순간,
다시 새싹을 틔운다.²³⁾

원시가 종업원의 행동과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면, 위의 2차 수정 시는 보다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원시에 대한 1차 수정 시의 불필요한 내용이 일정 부분 정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다 안정된 시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종업원(服务员)’, ‘테이블(拭桌面)’, ‘닦다(擦)’, ‘꿈(梦)’, ‘미완의 대화들(未完成的对话)’, ‘공기(空气)’ 등 핵심 시어는 유지되었지만, 일부 표현은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재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공기 속에서 서리로 응결되다(在空气中凝结成霜)’는 ‘공기 속에서 대화의 여운은 서서히 얇은 서리로 굳어졌다(空气里, 话语的余温/ 渐渐凝成薄霜)’라는 식으로 서술성이 강화되었다. 시적 함축성은 약화되었지만, 각 행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고 이미지 전개 of 흐름이 명확해짐으로써 독자의 가독성이 제고된 것이다.

이렇듯, 생성형 AI의 시 쓰기는 결과물의 산출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지시와 피드백을 계속 반영하면서 시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는 창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무한한 생성이 예술적인 완성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AI의 즉시성과 반복 학습이 질 높은 시 창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무한한 생성 가능성이 이용자 자신의 명확한 문학적 기준과 미적 판단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시점의 인간-AI 관계는 ‘활용’ 단계에서 ‘협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AI 산출 결과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정과 재생성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미적 목적을 향해 가는 이

23) “服务员擦拭桌面的动作, / 抹布划过木纹的沟壑, / 像在擦拭一场梦——/ 那些未完成的对话, / 在杯沿留下月牙形的渍印, / 在烟灰缸里堆成小小的废墟。/ 水珠沿着指缝滑落, / 每一滴都裹着某个名字的低语。// 空气里, 话语的余温/ 渐渐凝成薄霜, / 附着在玻璃窗的内侧, / 像冬天提前降临的密码。/ 桌布褶皱里藏着的叹息, / 被一一捋平, / 又在新客人落座的瞬间, / 重新发芽。” 2026.4. 13. DeepSeek 생성 시.

과정은, 인간과 AI가 상호 응답을 거듭하며 작품을 함께 창작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대화는 질의응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의도와 기계의 계산이 결합된 ‘공동 구성(co-construction)’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면서 글쓰기는 AI가 인간이 설계한 워크플로우(workflow)에서 글쓰기를 보조하는 ‘인간 중심의 창작’으로부터, 인간이 도구의 작동을 관리 감시하는 운영자(operator)의 성격으로 나아가는 ‘고도로 자동화된 AI 시스템(highly automated AI system)’ 사이의 ‘하이브리드 협업(hybrid collaboration)’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²⁴⁾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인간 창작자는 자신의 작업 흐름과 정보 체계를 AI와 호환되도록 재구성하면서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적 판단과 창의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AI와 ‘협업’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지적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는²⁵⁾ 이 단계에 대한 시가계의 반응은 미온적인 편이다. 특히 어떤 작품이 훌륭한 시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비평계는, AI의 도움을 받은 작품이 문예지나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상황을 경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시간(詩刊)》 부편집장 휘권밍이 온라인에 게시한 〈시인에게 고함(告詩人)〉은 “일부 작가들이 AI로 생성한 시를 투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당사는 이미 AI 글쓰기 탐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작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구 게재 불허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²⁶⁾ 중국 시단의 대표 문예지인 《시간》의 이 같은 입장이 공

24) James Hutson, “Human-AI Collaboration in Writing: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Creative and Intellectual Autho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hanges in Education*, Vol. 00 Iss. 00, 2025, pp.2-3.

25) 최근 ‘인간-AI’ 협업이 강조됨에 따라, 창의적인 업무 종사자가 AI와 협업했을 때 업무 성과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많이 보고되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Patrick Hemmer, Max Schemmer, Niklas Köhl, Michael Vössing & Gerhard Satzger, “Complementarity in human-AI collaboration: concept, sources, and evidenc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34, No.6, 2025, pp.979-1002.

26) 霍俊明. 〈告诗人! 这类诗歌《诗刊》永不刊用!〉, 2025.02.07. 게시. <https://mp.weixin.qq.com/s/b2w-756mZrpau3UcsN0wjg> (2025.10.22. 접속)

개되자 《시조(诗潮)》, 《시가월간(诗歌月刊)》 등 편집인들도 유사한 견해를 SNS를 통해 공유하며 AI 시 창작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었다.

AI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AI 활용이 시 창작에 드러나지 않는 현재의 창작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자신의 AI 활용 사실을 공개한 시인은 노동자 시인 출신 선즈룽(沈志荣)에 불과하다. 그는 AI 검색을 활용하여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와 정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선별한다. 그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로부터 T.S.엘리엇의 〈황무지(The Waste Land)〉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 텍스트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서술의 단서와 표현의 힌트를 당대 중국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에 결합시킴으로써 동서양과의 고대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적 전통을 자신의 작품에 구현하고자 한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시가 “AI의 차가운 얼굴에 따뜻한 감정을 부여했다”고 평가하면서, AI와의 협업이 인간 감성의 확장을 도울 수도 있다고 보는 한편, AI 검색을 통해 확보된 내용은 결국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재료에 불과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²⁷⁾ AI는 시적 영감을 촉발하거나 자료 탐색을 돕는 도구일 뿐 그것이 시의 궁극적인 의미와 정서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계의 AI 협업에 대한 태도는 시단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천추판(陈楸帆)은 2017년 중신출판그룹(中信出版集团)으로부터 인간과 AI이야기를 다루는 단편집 《인생 알고리즘(人生算法)》 집필을 제안 받은 뒤, AI를 도구가 아닌 창작의 동반자로 참여시키는 실험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구글 출신 엔지니어 왕융강(王永刚)과 협업하여 자신의 기존 작품과 공개 자료를 학습시킨 ‘천추판 2.0’을

27) 선즈룽의 AI 활용 창작으로는 《탄생과 비상(诞生与飞翔)》, 《석회와 산연의 세 생에 걸친 노래(石辉和山燕三生谣)》 등이 있다. 〈晚潮 | AI의妩媚与作家的面对——浅析沈志荣叙事长诗九章的创作实验〉, 《潮新闻》, 2025.7.8. 게시, http://view.inews.qq.com/k/20250708A06TES00?web_channel=wap&openApp=false&no-redirect=1 (2025.10.22. 접속)

개발했을 정도로 협업에 적극적이었다. AI와 공동 집필한 그의 단편 소설 〈출신상태(出身状态)〉는 모옌(莫言)의 〈모세를 기다리며(等待摩西)〉를 제치고 문학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천추판은 류즈신(刘慈欣), 한송(韩松) 등 SF작가의 작품을 모델링한 자체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인간과 AI가 함께 창작하는 새로운 서사 실험을 이어가는 중이다.²⁸⁾

IV. 기술 향유에서 창작 협업으로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아마추어 창작자는 약 600만 명이다.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그 중에서도 웹문학(网络文学) 분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문학 이용자 수가 약 5억 4천만 명이니²⁹⁾,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작품을 읽고, 댓글·리뷰·2차 창작 등 참여적 향유를 수행하는 셈이다. 아마추어 창작과 인터넷의 이 같은 연관 속에서, 웹문학 산업은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예원그룹(阅文集团)은 AI를 활용하여 작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의 확대 및 개편 등에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멀티모달 기반의 빅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식의 문학 소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기도 한다.³⁰⁾

28) 2019년, 천추판(陈楸帆)의 〈출신상태(出身状态)〉는 《수확(收获)》, 《사남문학선간(思南文学选刊)》이 공동 주최한 대회의 AI 문학부문(AI文学榜)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 모옌(莫言)이 《시월(十月)》에 낸 《모세를 기다리며(等待摩西)》를 이긴 결과였다. 韩扬眉, 〈陈楸帆:我和AI合著的小说“打败”了莫〉, 《中国科学报》 2024.2.2. 게시. <https://news.sciencenet.cn/sbhtmlnews/2024/2/378273.shtm> (2025.10.23. 접속)

29) 2024년 기준, 인터넷문학(网络文学) 작가 수는 3,119만 8천만 명이며, 190만 4천명의 새로운 작가가 탄생하였다. 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课题组, 〈2024中国网络文学发展研究报告, 《中国科学网》〉, 2025.5.13. 게시. https://www.cssn.cn/wx/tbch/202505/t20250513_5873701.shtml (2025.10.23. 접속)

이와 달리, 시 분야는 유료 독자층이 매우 얇아 AI 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차이는 장르 특징과 창작 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말미암는다. 인물 형상의 복잡한 관계를 서사해야 하는 소설은 창작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언어의 함축과 직관을 형상화해야 하는 시는 AI가 이를 모방하거나 대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시단이 AI 협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 또한 AI가 시 창작을 빼앗아가버릴지도 모른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협업’ 단계가 언제든 ‘고도로 자동화된 AI 시스템(highly automated AI system)’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의 표출인 것이다.

그럼에도 시 창작은 플랫폼 기반의 AI 기술 확산을 통하여 새로운 대중화 국면을 맞이하는 중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시단은 대중을 상실한 상태에서 엘리트 중심의 창작과 감상을 유지할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오홍슈·빌리빌리·틱톡·콰이쇼우(快手) 등 동영상 플랫폼의 부상과 함께 아마추어 시 창작자들이 자신의 시를 짧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네티즌과의 실시간 소통이 일반화하게 되었다. 이들은 일상 속의 경험과 감정을 짧은 문구로 표현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함으로써 감성의 공명 구조를 형성하고, 대중 또한 이들을 통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된다. 플랫폼이 시 창작과 향유를 교차시키는 새로운 문학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마추어 시 창작자들의 부상이 AI의 영역확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I가 향유(享有) 단계에서 독자의 감정과 판단을 매개하는 주체로 영역을 확장할 즈음에 플랫폼에서의 시 창작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세 측면의 기술 변화 및 수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첫째, AI 음성 낭송 시스템이다. 위챗(WeChat)의 ‘AI 시 낭독(AI詩朗讀)’ 기능은 사용자가 시 텍스트를 입력하고 화자 유형과 속도를 선택하면

30) 이화진, <중국 웹소설 플랫폼의 ‘진화’와 AI의 작용>, 《중국현대문학》 제111호, 2025, 33-34쪽.

AI가 음성파일을 mp3로 자동생성하여 위챗모먼츠(朋友圈)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게 해준다. 샤오빙의 경우, 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성 낭송뿐 아니라 캐릭터의 영상 합성과 배경 이미지를 자동 매칭하여, 시를 시청각적 감각체험으로 전환시킨다. 사용자는 목소리의 톤, 감정의 강도, 배경음악 등을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AI가 매개하는 개인화된 감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기술 환경은 독자로 하여금 시를 ‘읽는’ 자에서 ‘듣고-공유하고-재생산하는’ 능동적 향유 주체로 전환하게 하기도 하였다.

둘째, 이미지·영상 기반 시 감상 경험의 확대이다.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 콰이쇼우 등은 사용자가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 위에 시 텍스트를 결합하거나 AI가 영상 전체를 자동 생성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멀티모달 기술에 기반한 이러한 서비스는 시를 언어 예술에서 시각-청각-정서가 결합된 통합적 향유의 대상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기술 환경은 경우에 따라 아마추어 시인의 결점을 보완하는 도구로서 가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라이더 시인(外卖诗人) 왕지빙(王计兵, 1969~)³¹⁾은 음성 입력 방식을 활용하여 시를 창작한다. 긴 글을 쓸 때에는 문법 오류 교정, 산문 형식으로서의 재구성, 구두점 점검 등을 AI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는 AI가 글의 편집과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주는 기술적 효율성에 만족감을 표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간을 창작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³²⁾ 왕지빙에게 AI는 창작자가 자신의 부족한 표현력이나

31) 왕지빙은 배달 노동의 현실과 그 속의 인간적 갈등을 시로 형상화하는 라이더 시인이다. 젊은 시절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국을 떠돌았으며, 현재는 아내와 함께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 기간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하였으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한 이후였다. 그의 시가 비평가 천차오화(陈朝华)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왕지빙은 일상의 노동 경험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하는 시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32) 吴丽蓉, 〈让文学回归文学本身——专访“外卖诗人”王计兵〉, 《工人日报》 2025. 04.13. 게시. <https://image.chinawriter.com.cn/n1/2025/0413/c405057-40458575.html?utm> (2025.10.23. 접속)

언어적 한계를 점검하고, 더 나은 문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자기참조적 학습의 매개자이다. 다시 말해서 AI는 개별 창작자의 잠재력을 확장시키고 그가 자신의 언어 세계를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는 협업 파트너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왕지빙과 같은 아마추어 시인에게 AI는 예술적 권위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시인 간에 존재하는 창작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기술적인 동반자로 인식된다. 왕지빙이 AI는 작가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잠재력을 키움으로써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AI의 도입과 활용이 때때로 문학의 ‘민주화’로 평가되는 것 또한 이로 말미암는다.³³⁾

셋째, 해석과 비평의 자동화이다. 바이두 원신이엔(文心一言), DeepSeek, ChatGPT 등 주요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 시를 해석해줘”라고 요청하면 즉시 비평 텍스트를 생성한다. 특히 《중국시가망(中国诗歌网)》은 독자 참여형 ‘AI 시 비평(AI评诗)’ 코너를 개설하여, 독자가 업로드한 시를 AI가 분석 평가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AI는 비평의 자동화와 평가 체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새로운 비평 주체로 거듭나는 중이다.³⁴⁾ 아래는 자연의 순환과 세대의 기억,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삶의 깨달음과 겸허함을 담아낸 아이디 ‘무루산인(牧驴山人)’의 〈흰 이슬이 내릴 때는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白露身不露)〉에 대한 비평이다.

이 시는 현대시의 형식을 취해 절기 ‘백로’를 서두로 삼아 가정의 따뜻한 정과 시간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교묘하게 엮어내고 있다. 시 속의 속담 흰 이슬이 내릴 때는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 ‘흰 이슬이 내릴

33) “Sadaf Begum, AI and Literatur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reative Writing and Narrative Forms”, *Journal of Social Signs Review*, Vol.3 No. 06, 2025, p.182.

34) 아래 링크는 AI 기반 시 비평 사이트로, 작자가 시를 게시하면 AI가 해당 작품에 대한 비평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용자층은 아마추어 시인뿐 아니라 전업작가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비평이 DeepSeek에 수행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https://www.yzs.com/zhgshg/Aishiping/index_8.html?WebShieldDRSessionVerify=1UU\\$dotuj0lC1vmu1Lzx](https://www.yzs.com/zhgshg/Aishiping/index_8.html?WebShieldDRSessionVerify=1UU$dotuj0lC1vmu1Lzx) (2025.10.23. 접속)

대는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白露身不露)’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 아버지가 전한 삶의 소박한 지혜로 재탄생한다. “시간은 매듭을 한 번 짓고 또 설 새 없이 앞으로 달려갔다”는 시간이 기억 속에서는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는 모순적인 속성을 생생히 그려낸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빛나는 덧저고리’(夹衫泛着微光)에서 ‘절기의 결(节畧的纹路)’로 넘어가는 부분의 이미지 전환이 다소 급작스럽다는 점이다. 이 장면의 전환이 좀 더 자연스러웠다면, 시 전체의 흐름이 한층 매끄러웠을 것이다.³⁵⁾

AI 대중화 경향은 비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AI 자동 비평은 작품의 구조적 특징과 언어 패턴을 신속하게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비평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이는 대량의 문학 텍스트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기반 비평 연구나 교육용 보조 시스템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와 효율의 장점은 감정적 통찰, 문화적 맥락의 이해, 가치 판단의 주체성 등 인간 비평이 수행해 온 핵심 기능을 대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AI는 텍스트 내부의 통계적 규칙을 포착할 수는 있지만 작품의 시대 상황, 작가의 내면 심리, 사회적 의미망 등에 대한 해석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AI가 산출하는 평가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한 평균화된 감상 패턴의 재현에 가깝기 때문에, 이미 학습된 다수의 언어 습관을 반복 재조합하여 비평 언어의 획일화와 개성 일탈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문학 비평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감응과 해석의 다양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인의 개성 발휘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AI 비평의 출현과 활용을 낙관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게 한다.

35) 〈中国诗歌网AI诗评：《白露》〉, 《中国诗歌网》, 2025.10.18. 게시 https://blog.sina.com.cn/s/blog_4a78cc020102zqd1.html (2025.10.23. 접속)

V. 결론

생성형 AI의 등장은 시가장의 전통적 질서에 변화를 가하는 중이다. 창작자는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언어와 형식을 탐색하고, 독자는 AI를 매개로 작품을 향유함으로써 문학 소비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비평의 영역 또한 자동화된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AI가 문학장에 진입함에 따라, 문학의 생산·유통·수용 과정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업은 동시에 새로운 법적·윤리적 쟁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AI가 생성한 시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중국에서 저작권 주체를 인간 작가로 한정할 것인지, AI 시스템 개발자와 공동 저작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논의는 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 창의성의 범위를 다시 정의하는 문화논쟁으로도 확장되는 중이다.³⁶⁾

이와 같은 변화는 문학장을 하나의 고정된 질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편되는 역동적인 장으로 이해하게 한다. 피에르 부르디외에 의하면, 문학장은 기존의 문학적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이를 전복하려는 새로운 행위자들이 상징 자본의 독점과 문학적 가치 인정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공간이다.³⁷⁾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술의 출현과 확산은 인공지능이라는 비인간 행위자를 문학장에 유입시키며, 그 구조를 이전보다 더욱 복잡한 상태로 전환시키고 있다. 인간이 점유해 온 장에 기술 주체가 개입함으로써 창작의 주체성과 정통성, 나아가 가치 판단의 기준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문학장 역시 미래의 새로운 투쟁 주체로서 AI

36) 이러한 연구 성과로는 S Begum의 “AI and literatur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reative writing and narrative forms” (*Journal of Social Signs Review* Vol. 3 No. 6 (2025))가 있다.

37) 피에르 부르디외 저,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서울: 동문선, 1999, 284-288쪽 참조.

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균형은 기술에 의한 데이터의 자동 생성과 인간 창작의 고수라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기술이 산출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이용자의 주체적 실천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단계의 AI는 독자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문학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만큼의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를 인간 창작의 종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기술을 통해 인간 존재의 고유성을 재발견하고 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이화진, <중국 웹소설 플랫폼의 ‘진화’와 AI의 작용>, 《중국현대문학》 제 111호, 2025
- 이형권, <인공지능 문학의 예술적 정체성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85집, 2021
- 장강명, 《먼저 온 미래 -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서울: 동아 시아, 2025.
- 피에르 부르디외 저,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서울: 동문선, 1999.
- 曹越, <人工智能创作物的著作权问题研究——以“微软小冰”为例>, 《社会科学动态》 第3期, 2019.
- 霍俊明, <DeepSeek: 算法天幕与未来诗学>, 《扬子江文学评论》 第3期, 2025.

- 刘鹏波, 〈DeepSeek 强势出圈, 写诗不再神秘?〉, 《文艺报》, 2025.2.19.
- 小冰, 《阳光失去了玻璃窗》, 北京:北京联合出版公司, 2017.
- 吴慧娟, 〈从语言到思想:"小冰"的诗再思考〉, 《汉字文化》 第8期, 2024.
- 周瓚, 〈新世纪诗歌场域、作者身份与当代性呈现〉 《中国文学批评》 第24期, 2024.
- James Hutson, "Human-AI Collaboration in Writing: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for Creative and Intellectual Autho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hanges in Education*, Vol. 00 Iss. 00, 2025.
- Mingzu Lin, Juan Du, "Is It New Poetry or the Emperor's New Clothes? —An Overall Investigation of Three Poetry Collections and a Man-machine Poetry Compet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et Xiaobing", 2021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 and Education (ICISE-IE).
- Patrick Hemmer, Max Schemmer, Niklas Kühn, Michael Vössing & Gerhard Satzger, "Complementarity in human-AI collaboration: concept, sources, and evidenc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34, No.6, 2025.
- Sadaf Begum, "AI and Literatur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reative Writing and Narrative Forms", *Journal of Social Signs Review*, Vol.3 No. 06, 2025.

〈온라인 사이트〉

- 霍俊明, 〈告诗人! 这类诗歌《诗刊》永不刊用!〉, 2025.02.07. 게시. <https://mp.weixin.qq.com/s/b2w-756mZrpau3UcsN0wJg> (2026.1.23. 접속)
- 张鹏禹, 〈当人工智能也“拿起笔”〉, 《人民网》, 2019.9.10. 게시. https://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9-09/10/content_1945703.htm(2026.4.13. 접속)
- 于坚, 〈于坚论DeepSeek: 它只是一个知识分子, 不是诗人〉, 2025.3.14. 게

- 시.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0394359 (2026. 2.10. 접속)
- 〈晚潮 | AI的妩媚与作家的面对——浅析沈志荣叙事长诗九章的创作实验〉, 《潮新闻》, 2025.7.8. 기사. https://view.inews.qq.com/k/20250708A06TES00?web_channel=wap&openApp=false&no-redirect=1 (2025. 10.22. 접속)
- 韩扬眉, 〈陈楸帆:我和AI合著的小说“打败”了莫〉, 《中国科学报》 2024.2. 2. 기사. <https://news.sciencenet.cn/sbhtmlnews/2024/2/378273.shtml> (2025.10.23. 접속)
- 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课题组, 〈2024中国网络文学发展研究报告, 《中国科学网》〉, 2025.5.13. 기사. https://www.cssn.cn/wx/tbch/202505/t20250513_5873701.shtml (2025.10.23. 접속)
- 吴丽蓉, 〈让文学回归文学本身——专访“外卖诗人”王计兵〉, 《工人日报》 2025. 04.13. 기사. <https://image.chinawriter.com.cn/n1/2025/0413/c405057-40458575.html?utm> (2025.10.23. 접속)
- 〈中国诗歌网AI诗评:《白露》〉, 《中国诗歌网》, 2025.10.18. 기사. https://blog.sina.com.cn/s/blog_4a78cc020102zqd1.html (2025.10.23. 접속)
- 〈중국 AI 비평 사이트 홈페이지〉
https://www.yzs.com/zhgshg/Aishiping/index_8.html?WebShieldDRSessionVerify=1UUsdotuj0lClvmuIIzx (2025.10.23. 접속)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s that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has brought to the Chinese poetry field and argues that poetic

creation is entering a stage of human-AI collaborative creation (co-creative creation). To this end, the study investigates poetry-generation systems such as Microsoft's Xiaoice and DeepSeek, analyzing how AI has influenced the production of poetic language, imagery, and form. It further explores how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re reshaping the structures of literary production, criticism, and reception. The findings show that AI functions not only as a tool assisting creative writing but also as a medium that enhances poetic reception through voice recitation, image- and video-based appreciation, and automated criticism, thereby supporting readers' interpretive and aesthetic experiences.

These developments raise new questions regarding established literary concepts such as originality, artistic subjectivity, and the attribution of copyright. However, the literary field in the era of generative AI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process in which AI replaces human creativity. Rather, it should be viewed as a process of co-evolution between technological systems and human creativity. In this sense, AI does not signify the end of human authorship; instead, it is increasingly emerging as a collaborative partner that expands the possibilities of poetic imagination and express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seeks to illuminate the evolving ecology of poetic creation in the age of generative AI.

Key Words : Generative AI, Human-AI Collaborative Creation, Chinese Poetry Field, Poetic Creation, Literary Reception, Xiaoice, DeepSeek

